제16권 13호
2026. 7. 13 ~ 2026. 7. 26

하나로연결된 모두의금융.

하나금융 포커스

Bi-Weekly Hana Financial Focus

논단	소비행태와 신용위험과의 관계
이슈분석	하반기 경제 전망: AI 특수에 따른 양호한 성장세 기대
금융경영브리프	OCBC, RM과 AI의 투트랙 자산관리 전략 강화 Barclays, 청소년 금융 앱 인수로 유스 사업 확대
국제금융이슈	상승하는 원 · 달러환율...외환집중제와 재정준칙 시급하다
금융지표	국내 금융시장 해외 금융시장

하나은행
하나금융연구소

인간

연구자는 사람,+ 고객은 사람++

세상을 바꾸기 전에 먼저 사람을 바꿔야 합니다.
현실에 기초한 진지한 연구를 통해
사회적 신뢰를 창조하는 것
하나금융연구소의 사명입니다.

집필진

편집

연구위원	안성학(shahn0330)
연구위원	강미정(ashleykang)
연구원	이시은(sieunyi)

논단

서강대학교 경제학과 명예교수 남주하

이슈분석

연구위원	정유탁(jungyt)

금융경영브리프

수석연구원	서가연(gayeonseo)
연구원	정안선(ansunc)

국제금융이슈

연구자문위원	한상춘

금융지표

연구원	하온누리(onrha)

내용에 대한 문의나 건의사항은 담당연구원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ID@hanafn.com)

하나은행
하나금융연구소

제16권 13호
2026. 7. 10 ~ 2026. 7. 26

하나로연결된 모두의금융.

하나금융 포커스

Bi-Weekly Hana Financial Focus

01	논단	소비행태와 신용위험과의 관계
06	이슈분석	하반기 경제 전망: AI 특수에 따른 양호한 성장세 기대
10	금융경영브리프	OCBC, RM과 AI의 투트랙 자산관리 전략 강화 Barclays, 청소년 금융 앱 인수로 유스 사업 확대
14	국제금융이슈	상승하는 원 · 달러환율...외환집중제와 재정준칙 시급하다
18	금융지표	국내 금융시장 해외 금융시장

소비행태와 신용위험과의 관계*

남 주 하 서강대학교 경제학과 명예교수

마이데이터의 도입으로 미시적 소비행태 데이터가 기존 소득 중심 신용평가의 한계를 보완할 사전적 위험 지표로 주목받고 있다. 개인의 소비 패턴에는 직접적으로 관찰하기 어려운 행동적 특성과 미래 상환 능력이 반영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행 소득 및 거래 실적에 편중된 금융기관의 우대금리 산정 체계를 차주의 소비 행태 기반으로 확장하여 구조적 사각지대를 보완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의료 및 통신 등 비금융 데이터까지 통합적으로 융합하여 총량적 금융정보에 기반한 더욱 정교한 개인 신용평가 체계를 구축하고 금융경쟁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신용위험에서 중요한 소비행태 데이터

사후적 예측과 평가에 그치고 있는 현행 개인 신용위험 분석

개인의 신용위험은 상업은행의 건전성 유지와 효율적 자원배분을 위해 매우 중요한 과제이지만 현재 개인의 소득, 소비, 저축, 자산, 부채 등 개인적 차원의 총량적 지표에 주로 의존하여 사후적인 예측과 평가에 그치고 있다. 단순히 소비총량에 의존하는 신용위험의 예측과 평가는 미시적인 소비행태에 따라 신용위험의 차이가 난다는 사실을 간과하는 한계를 지니게 된다. 차입자의 위험 회피 성향(risk aversion), 시간 선호(time preference), 자기통제력(self-control)과 같은 행동적 특성이 신용위험 분석과 예측에 중요하나 연체 발생 이전에는 직접 관찰되기 어렵다. 반면에 미시적인 소비 행태 데이터는 사후적 신용 기록으로는 관찰되지 않는 차입자의 이질성과 행동적 특성뿐만 아니라 개인의 심리적·인지적 특성이 반영되므로 신용위험의 예측을 위해 사전적으로 식별할 수 있는 보완적 정보(complementary information)가 될 수 있다.

소비행태 데이터는 소비의 자본적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장점

더욱이 다양한 미시적 소비지출의 구성은 소비의 자본적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예를 들면, 교육, 운동, 헬스케어, 문화 활동 등에 대한 지출은 기업의 자본재 투자와 유사하게 인적·육체적·문화적 자본의 축적으로 이어져, 장기적으로 노동 생산성 향상과 소득 증대를 통해 신용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다. 반면 즉각적 편의를 우선하는 소모성 지출은 가처분 여력을 축소시켜 상환 능력을 떨어뜨리고, 신용위험을 높이게 된다. 기업의

* 본고의 내용은 집필자 개인의견으로 하나금융연구소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투자 지출이 자본재 형성과 생산성 향상을 통해 미래 수익으로 이어지듯, 개인의 소비 지출 역시 그 구성에 따라 자본적 지출의 성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신용위험에 서로 다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듯 미시적인 소비행태는 대출자인 상업은행이 직접적으로 관찰하기 어려운 차주의 내재적 특성을 간접적으로 반영할 수 있으므로 신용위험의 분석에 필요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마이데이터의 도입으로 소비행태 분석 가능

마이데이터는 기존 신용분석의 한계를 극복하는데 중요한 기여

이러한 이론적·논리적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실제 결제 내역에 기반한 소비지출을 사용한 미시적 신용위험 분석은 데이터 접근성 문제로 인해 지금까지 다루어지지 못하였다. 하지만 2022년에 도입된 금융마이데이터(MyData) 제도는 소비총량에 의존한 기존의 신용위험 분석의 한계점을 극복하는 데에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다. 마이데이터는 개인이 자신의 금융 정보를 직접 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오픈 API(Open 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방식으로 금융기관 간 데이터 이동을 가능하게 하며, 개인 동의하에 실거래 수준의 모든 카드 소비지출 내역을 안전하게 수집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주요국 제도와 차별화된 한국의 마이데이터

본 제도의 법적 근거는 2020년 1월 개정된 신용정보법을 통해 명문화되었으며, 이를 통해 개별 차입자의 전송요구권 보장과 본인신용정보관리업에 대한 금융업 라이선스 부여가 공식화되었다. 표준화된 오픈 API 방식의 도입은 데이터 수집의 신뢰성과 법적 유효성을 높였다는 점에서 기존 스크래핑 방식과 본질적으로 구별된다. 정보 주체가 마이데이터 플랫폼을 통해 동의를 제공하면, 해당 플랫폼이 금융당국이 인가한 표준 API 채널로 각 금융기관의 거래 데이터를 수신한다. 오픈 API 방식의 도입은 데이터 수집 방식의 전환에 그치지 않고, 적용 범위의 측면에서도 한국 마이데이터를 주요국 제도와 차별화한다. 한국 마이데이터는 예금·대출·카드·보험·투자·연금·선불전자지급수단에 이르는 광범위한 금융 데이터를 단일 법체계 아래 통합한다. EU의 제2차 지급결제서비스 지침(PSD2, Payment Services Directive 2)과 영국의 오픈뱅킹이 결제계좌와 신용카드를 중심으로 하는 반면, 한국은 개인의 전방위 금융 데이터를 포괄한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호주의 소비자데이터권리(CDR, Consumer Data Right)는 적용 상품 범위에

서 한국과 유사한 수준이나, 이체 지시에 해당하는 쓰기(write) API를 의무화하지 않았으며 데이터 표준화 정착에도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었다. 반면 한국은 쓰기 기능을 포함하고, 금융결제원·신용정보원 등 공공 기관이 중앙 중계 기관 역할을 수행하는 단일 연결 구조(hub-and-spoke)를 채택하여 빠른 확산과 높은 상호운용성을 달성하였다. 2024년 발표된 마이데이터 2.0 추진방안에서는 퇴직연금·개인연금·공적연금·신탁 계좌·보험계약대출이 추가되었고, 금융분야 정보제공 API 항목도 720개로 확대되었다.

비금융 분야로도 확장되고 있는 마이데이터

금융 데이터 중심의 마이데이터 체계는 비금융 분야로도 확장되고 있다. 2025년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이 도입되어 의료·통신·에너지 분야에 우선 적용되었으며, 2026년부터는 적용 범위가 전 분야로 확대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한국의 마이데이터 제도는 신용정보법상 금융 마이데이터와 개인정보보호법상 일반 마이데이터로 구성된 이중 법체계를 갖추게 되었으며, 이는 개인의 금융·비금융 데이터를 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형성한다.

직접 측정이 어려운 행동적 특성을 소비 패턴이라는 간접 지표로 추론 가능

이러한 제도적 환경은 신용위험 연구에서 활용 가능한 정보 집합을 사후적 결과 기록에서 사전적 행태 지표로 확장한다는 점에서 연구적 의의를 갖는다. 기존 신용정보는 연체 발생·부채 상환 이력 등 이미 실현된 결과를 주로 담는 반면, 마이데이터 환경에서는 카드 결제 내역을 통해 개인의 지출 항목과 지출 비중을 실시간으로 관찰할 수 있다. 특히 마이데이터의 동의는 발급사별로 이루어지므로, 정보주체가 보유한 복수의 카드사를 연결할 경우 특정 카드회사 한 곳의 거래에 국한되지 않고 해당 개인이 사용한 전체 카드사의 결제내역이 통합적으로 집계된다. 개인의 지출 구성이 관찰 가능해지면, 시간 선호·위험 회피 성향·자기 통제력 등 직접 측정이 어려운 행동적 특성을 소비 패턴이라는 간접 지표로 추론할 수 있다. 이는 차입자의 미래 상환 능력을 사전에 판별하는 데 유용한 추가 정보를 제공하며, 개인신용시장의 정보 비대칭성을 완화하는 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다.

소비행태와 신용위험과의 관계 실증분석

미시적인 소비지출이 개인의 신용위험과 통계적으로 유의

최근 소비행태와 신용위험과의 실증적 연구[1]에 의하면, 미시적인 소비지출은 개인의 신용위험을 예측하는데 상당한 의미있는 정보를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여만 개의 실결제 소비지출 데이터를 사용한 실증

|1| 남주하 외(2026), “소비행태와 개인신용위험: 마이데이터 기반”

적 분석에 의하면 소비 지출의 신용위험 예측력(AUROC 기준)은 65%에 달해 제한된 정보 하에서 충분한 변별력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19개 소분류 항목 중 신용 위험과 유의한 양(+)의 관련을 보이는 변수로는 통신, 편의점, 택시, 카페·간식으로 확인되었으며, 교육, 스포츠·운동, 의류, 의료·건강 등은 유의한 음(-)의 관련을 보이고 있다. 소비지출의 19개 소분류 항목을 자본적 특성을 고려하여 8개의 중분류로 재분류|2|한 실증분석에서도 8개 항목 중 5개 항목(인적지출, 문화지출, 육체지출, 필수지출, 기타지출)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업은행 우대금리에 대한 시사점

소득 중심의 금리 우대 정책을 보완할 필요성

소비지출행태가 소득을 통제한 이후에도 개인 신용위험과 유의한 관련성을 보인 실증적 결과는, 현재 소득 중심으로 설계된 한국 상업은행의 금리 우대 정책을 소비 행태 기반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국내 은행의 신용대출 금리는 지표금리, 가산금리, 가감조정금리로 구성된다. 지표금리는 COFIX 또는 은행채 금리로 대표되는 자금 조달 원가로, 시장 상황에 따라 결정되며 개별 차주의 특성과 무관하다. 가산금리는 주로 리스크 프리미엄(신용위험), 유동성 프리미엄, 업무원가, 목표이익률, 법정비용 등으로 구성되며, 이 중 신용위험 프리미엄이 차주의 신용등급을 반영하는 핵심 항목이다. 가감조정금리는 급여 이체, 자동이체, 신용카드 이용실적, 예·적금 가입 등 부수거래 실적에 따라 금리를 차감하는 우대금리 항목으로, 현행 금리 산정 체계에서 가장 유연하게 조정 가능한 영역이다. 최근 6개월(2025년 11월 ~ 2026년 4월) 기준 국내 5대 은행의 신용대출 평균 금리는 4.47%로, 이 중 가감조정금리는 평균 1.62%p이다. 그러나 현행 우대금리 항목은 급여 이체 실적, 예·적금 잔액, 자동이체 건수 등 은행과의 거래에 집중되어 있어, 소득 수준과 강한 정(+)의 상관관계가

|2| 소비지출의 중분류 및 소분류 항목

구분	중분류	소분류 항목		
1	인적 자본적 지출*	교육*		
2	문화 자본적 지출*	문화/레저	여행	
3	사회 자본적 지출	경조/선물	뷰티/미용	
4	육체 자본적 지출*	의료·건강*	스포츠*	
5	시간 효율적 지출	배달	택시*	
6	낭비적 지출	바/음주/유흥시설		
7	필수 지출*	주거	통신*	자녀/육아
		반려동물	대중교통	음식점
8	일반 기타 지출*	카페/간식*	편의점*	의류 쇼핑*

*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항목

예상된다. 소득이 낮은 차주, 씬 파일러 청년층, 비정형 근로자 등은 부수거래 실적이 상대적으로 낮아 우대금리 혜택에 접근하기 어렵다. 즉 현행 가감조정금리는 사실상 소득 수준에 연동된 금리 감면 구조로 작동하고 있으며, 은행과의 장기관계 지속, 부채상환능력이나 재무 건전성 등과는 거리가 있어 보인다.

소비 패턴으로 현행 금리우대 구조의 사각지대를 보완

상기 분석한 연구결과에 의하면 소비 지출 행태가 소득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금리 우대의 기준을 소득 중심에서 소비 행태를 기반으로 확장될 수 있는 실증적 근거를 제공하고, 두 가지 측면에서 금리 산정 체계의 변화에 기여할 수 있다. 첫째, 현행 신용등급 기반의 리스크 프리미엄에 실거래 소비 행태 정보를 추가함으로써 신용위험 추정의 정밀도를 높일 수 있다. 둘째, 특정 소비 패턴을 가감조정금리의 우대 기준 시 참고 정보로 고려하는 방안이다. 의료·건강 지출 비중이 높거나 필수재·편의성 지출 비중이 낮은 차주에 대해 일정 수준의 가감조정을 부여하는 체계를 설계할 경우, 우대금리의 기준이 은행 거래 실적에서 차주의 소비 패턴으로 확장될 수 있다. 이는 소득을 통제한 이후에도 유의한 신용위험 예측 정보를 금리 체계에 내재화하는 것으로, 현행 소득 중심 우대 구조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다양한 비금융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

포용금융 관점에서 마이데이터와 이종간 정보 융합 활용 필요

씬 파일러나 좀 더 다양하고 정교한 신용평가를 위해서는 마이데이터의 활용과 이종 간의 정보 융합도 적극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시급하다. 지금처럼 총량적 지표 중심의 사후적 신용평가는 효율성도 떨어지지만 포용금융 관점에서도 바람직하지 못하다. 마이데이터 제도는 2025년부터 금융 데이터에서 의료·통신·에너지 분야 등 비금융 분야로도 확장되었으며, 2026년부터는 적용 범위가 전 분야로 확대될 예정이어서 이제는 개인의 금융·비금융 데이터를 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건강정보, 통신정보, 유통정보, 디지털 흔적 등 다양한 비금융정보를 융합하여 총량적 금융정보에 기반한 개인 신용평가체계를 대폭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내 상업은행들이 이러한 법적으로 조성된 정보인프라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고, 지금처럼 손쉬운 방법으로 개인대출에 의존한 경영을 지속한다면 결국에는 금융경쟁력을 상실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하반기 경제 전망: AI 특수에 따른 양호한 성장세 기대

정 유 탁 연구위원

상반기 국내 경제는 중동 전쟁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호황과 정부의 경기부양 노력 등에 힘입어 견조한 성장세를 기록하였다. 하반기에도 AI 특수 및 정부의 정책적 지원 등을 감안할 때 양호한 성장세가 예상된다. 다만, 고물가·고금리의 부정적 영향이 점증하는 가운데 부문간·계층간 회복 차별화 등이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하반기 경제 여건과 관련하여 미국·이란 협상 추이, 美 정책 향방, AI 수익성 및 AI發 낙수효과의 실제 강도 등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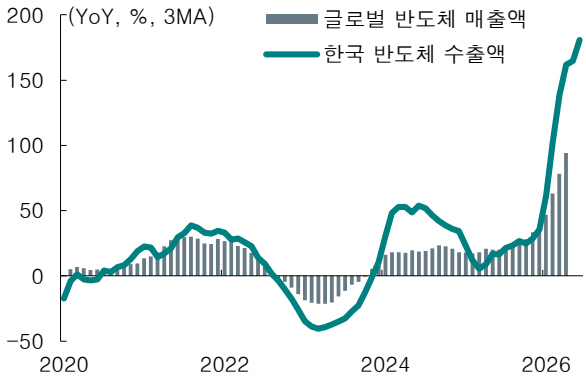
■ 상반기 국내 경제는 중동 전쟁에도 불구, 반도체 호황과 정부 정책 등으로 견조한 성장

- 2월말 중동 전쟁(미국·이스라엘 vs 이란) 발발 및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인해 위험회피심리가 확산하고, 국제유가는 급등하면서 글로벌 인플레이션 압력 부각
  - 원유 생산 및 수송 차질 여파로 인하여 국제유가(두바이 기준)는 한때 160달러/배럴 상회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

- 그러나 글로벌 AI 혁신 및 그에 따른 반도체 산업 호황에 힘입어 국내 수출이 급증하면서 국내 성장률은 팬데믹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
  - 전체/반도체 수출(YoY, %): 25.1H -0.0/11.4→25.2H 7.4/31.5→26.1H 48.4/16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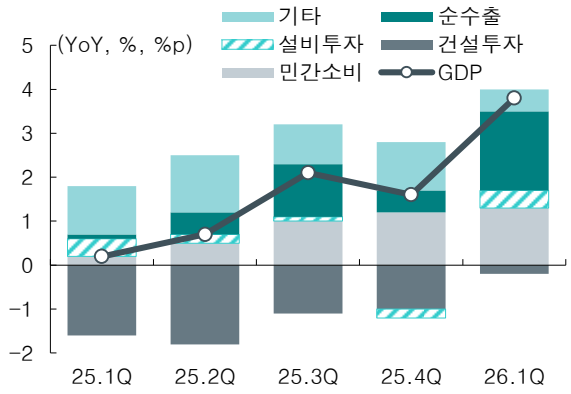
- 아울러 정부의 물가안정 대책(석유 최고가격제 등)과 추경예산 마련·집행 등 정부의 적극적인 경기부양 노력도 내수 개선에 긍정적으로 작용
  - 정부는 고유가 피해지원금(4.8조원) 등 26.2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신속집행

■ 글로벌 반도체 매출과 한국 반도체 수출(통관)



자료 : WSTS, 한국무역협회

■ 한국 GDP 성장률 및 항목별 기여도



자료 : 한국은행

■ 하반기 세계 경제는 AI 투자 확대에도 전쟁 부작용 등 고려 시 제한적인 성장 전망

- 글로벌 경제는 미국-이란 휴전 및 MOU 체결, 견조한 AI 투자 등에도 불구하고 고유가와 공급망 충격 여파가 영향을 미치면서 성장세는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
  - 글로벌 교역의 경우 AI 관련 수출 호조는 긍정적이나, 호르무즈 봉쇄 여파, 보호무역 우려 등으로 증가세 약화(OECD의 교역 신장률 전망: ’25년 5.0%→’26년 3.1%)

- 미국 경제는 AI 중심의 투자 확대가 성장 동력으로 작용하겠지만, 인플레이션 압력 및 그에 따른 시중금리 상승 등은 부담으로 작용
  - 재정건전성(정부부채·재정적자↑) 우려 역시 장기금리 상승요인(기간 프리미엄↑)

- 중국 경제는 경쟁력 강화 및 지역별 다변화를 통한 양호한 수출 흐름에도 불구하고 고용 부진과 부동산투자 위축 등을 감안할 때 성장세는 완만한 수준

■ 하반기 국내 경제는 AI 특수 및 정부의 정책 지원 등에 힘입어 양호한 성장세 기대

- 국내 경제는 AI 붐에 따른 파급효과가 수출과 내수에 모두 긍정적으로 작용하면서 양호한 성장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
  - AI 혁신이 IT 수출을 견인하는 가운데 기업의 투자 확대 및 가계 소득여건 개선 등을 통해 내수에도 긍정적으로 작용

- 또한, 첨단산업 투자와 소비 회복 등을 위해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지속되고 있는 점도 경기 여건에 우호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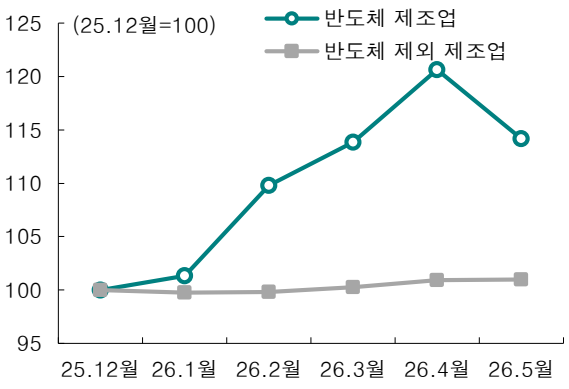
- 다만, 국내 경제에 있어 반도체 산업에 대한 의존도 심화 우려 속에 고물가·고금리 영향이 점차 증대되고, 부문간·계층간 회복이 차별적인 점 등은 제약요인
  - 컴퓨터·전자·광학기기 제조업의 GDP 비중: ’24년 9.3%→’25년 10.2%→26.1Q 11.5%

■ 글로벌 경제 성장률과 물가 상승률 전망치

항목 / 국가	경제 성장률(%)		물가 상승률(%)	
	2025년	2026년	2025년	2026년
세계	3.4	2.8	3.4	4.0
미국	2.1	2.0	2.6	3.7
유로존	1.4	0.8	2.1	2.8
일본	1.1	0.6	3.2	1.8
중국	5.0	4.5	-0.1	1.5

주 : 세계 물가 상승률은 G20 기준(미국은 PCE 기준)
자료 : OECD(6월 전망)

■ 한국 반도체 생산 및 반도체 제외 생산



주 : 제조업 생산지수(계절조정) 기준이며 3개월 이동평균
자료 : 국가데이터처

■ 내수는 IT 호황에 따른 가계 소득여건 개선 및 투자 수요 등으로 회복세 지속 예상

- 민간소비는 IT 호황에 따른 임금 상승 및 자산효과(주가 상승), 양호한 소비심리 등에 힘입어 완만한 증가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
  - 다만, IT 산업의 임금 증대 및 주가 상승의 수혜가 한계소비성향이 낮은 고소득층에 편중된 가운데 물가·금리 상승(구매력↓·원리금상환부담↑)도 소비 회복에 부담

- 건설투자는 AI 관련 투자(데이터센터, 반도체공장 등) 및 공공토목사업 증가 등의 영향으로 점차 증가세로 전환될 것으로 판단
  - 그러나 전쟁 이후 공사비 상승 속에 자금조달비용 상승, 미분양(주택) 해소 지연 등을 고려할 때 회복력은 제한적인 수준에 그칠 듯

- 설비투자의 경우 반도체 투자 수요와 기업실적 개선(투자 여력), 정부의 지원 강화(국민성장펀드, 반도체특별법) 등 감안 시 IT 중심으로 양호한 증가세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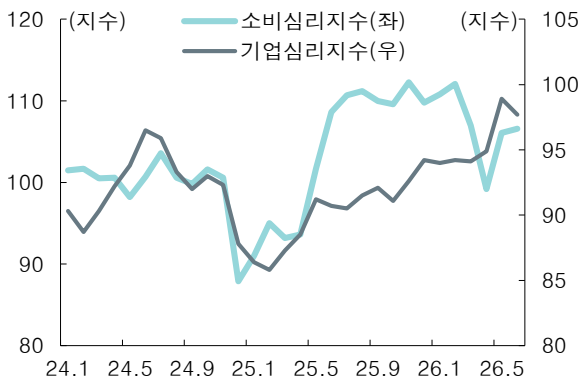
■ 수출은 AI發 반도체 슈퍼사이클 기대 속에 한류 등을 감안할 때 견조한 흐름 전망

- 수출(통관)은 글로벌 AI 투자 지속과 반도체 가격 상승세(수요 우위 여건) 등을 감안할 때 IT 품목을 중심으로 견조한 증가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
  - 반도체 수출물가(달러 기준, YoY): 25.2H 13.3%→26.1Q 92.4%→4~5월 155.9%
  - '26년 세계 메모리반도체 매출액 전망 변화(WSTS): 25.12월 39.4%→26.6월 249.5%

- 아울러 IT 품목뿐만 아니라 고부가가치 선박, 유망 소비재(K-푸드 및 K-뷰티) 등 여타 주력 품목들도 수출 증가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

- 다만, 美 관세 부과의 영향(자동차, 철강 등)과 관세정책 향방, 중동 전쟁 이후 원자재 수급 여건, 주요국과의 경쟁 심화 등에 유의할 필요

■ 한국 소비자심리지수(CSI) 및 기업심리지수(BSI)



자료 : 한국은행

■ 한국 주요 품목들의 수출 증가율

품목	26.1H(%)	품목	26.1H(%)
반도체	162.6	무선통신기기	31.5
석유제품·화학	22.3	비철금속	38.0
자동차·부품	-2.3	바이오헬스	11.2
일반기계	-2.9	전기기기	3.0
컴퓨터	262.0	디스플레이	9.4
선박	18.4	화장품	27.2
철강제품	-2.0	농수산식품	8.7

주 : 수출 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 기준
자료 : 산업자원통상부

■ 물가는 고유가 충격의 여파 속에 고환율 여건과 수요측 압력 등으로 높은 수준 예상

- 최근 미국과 이란의 MOU 체결 및 호르무즈 재개방 등으로 국제유가가 하락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국내 물가 상승압력은 점차 진정될 것으로 전망
  - 전쟁 이후 소비자물가 상승률(3~6월, YoY)은 2.8%를 기록한 가운데 석유류 가격이 20.1% 상승하면서 전체 물가 상승률 중 +0.9%p 기여

- 유가 급등에 따른 직접적인 물가 상승 충격은 완화되겠지만, 유가 상승의 2차 파급효과(근원물가 전이)에 따른 물가 상승 흐름은 이어질 가능성이 높음

- 게다가 고환율 여건, 경기 개선으로 인한 수요측 압력 등도 물가 상승요인으로 작용하는 가운데 기상 여건 악화에 따른 물가 변동성 위험도 존재
  - 세계기상기구에 따르면 금년 여름철(6~8월)에 엘니뇨가 발생할 확률은 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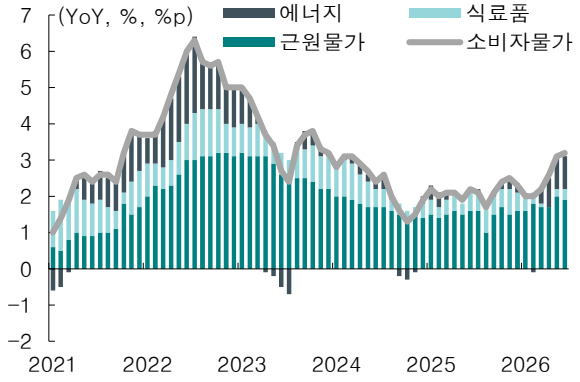
■ 하반기에 미국·이란 협상 추이, 美 정책 향방, AI 수익성 및 낙수효과 강도 등이 중요

- 미국과 이란이 종전 협상을 진행(6월 18일~8월 16일)하고 있으나, 핵 프로그램과 호르무즈 통행료 등 주요 의제 관련 이견이 상당하여 협상 과정 및 결과에 주목
  - 군사적 압박도 이어지는 상황에서 이스라엘의 對헤즈볼라 강경 기조도 불안요인

- 7월말 이후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법 301조에 근거하여 글로벌 관세를 부과할 예정인 가운데 품목별 관세의 확대 여부 등 美 관세정책 불확실성에도 유의
  - 연준 의장 교체 속에 중간선거·예산안 등 앞두고 통화정책·재정정책 향방도 중요

- 한국 경제에 있어 반도체 산업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빅테크의 AI 투자 수익성을 주시하는 가운데 대내적으로 AI發 낙수효과의 실제 강도에 주목할 필요
  - 과거보다 수출의 낙수효과 약화 속에 IT 산업의 자본집약적 특성 등 우려

■ 한국 소비자물가 상승률 및 항목별 기여도



자료 : Bloomberg Economics

■ 한국 경제지표 전망치

	2024년	2025년	2026년
GDP(%)	2.2	1.1	2.8
민간소비(%)	1.3	1.5	2.1
건설투자(%)	-2.0	-9.7	0.3
설비투자(%)	1.0	1.5	4.9
경상수지(억달러)	1,000	1,231	2,915
통관수출(%)	8.1	3.8	40.2
통관수입(%)	-1.7	0.0	17.7
소비자물가(%)	2.3	2.1	2.7

자료 : 하나금융연구소

OCBC, RM과 AI의 투트랙 자산관리 전략 강화

서 가 연 수석연구원

OCBC는 3년 내 자산관리 전담인력 600명을 신규 채용하는 계획을 발표하는 동시에 AI 네이티브 자산관리 앱 'OCBC WoW'를 출시하였다. 인력 확충과 자산관리 서비스 디지털화를 내세운 투트랙 전략은 AI 기술을 직원의 업무 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추어 보조적으로 활용하려는 기업의 전략적 선택이다. 비이자 수익 강화를 위해 국내 금융사가 WM 부문을 확장하기 위해 노력하는 가운데, 고객과의 신뢰가 중요한 특성을 고려해 AI와 직원의 효과적 업무 분담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 OCBC는 대규모 인력 채용으로 AI와 인간이 WM 서비스를 투트랙으로 제공하는 전략 추진

- OCBC는 3년간 자산관리 부문 강화를 위해 자산관리 RM(Relationship Manager) 600명을 채용하여, AI 서비스와 함께 소수 고객 대상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1|
  - 현재 RM 당 평균 250~300명의 고객 관리가 이루어지는 상황으로, AI 도입에 따른 업무부담 완화 시 핵심 고액자산가를 위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이 가능
  - AI가 정보 제공, 단순 상담 등의 업무를 처리하고, 세무, 상속 등 AI가 판단하기 어려운 고도화된 의사결정이 필요시에는 담당 RM이 정보를 이관 받아 상담

- 싱가포르와 홍콩뿐만 아니라 ASEAN 지역의 자산관리 시장 성장세에 주목하여 국가별 전담 인력을 확충하고, AI 기술로 대중 부유층에 대한 진입장벽을 완화
  - '26.5월 인도네시아 HSBC의 IWPB(International Wealth & Premier Banking) 사업부를 인수하여, 33만여 명, 66억 싱가포르 달러(약 6.5조 원) 관리자산을 흡수

■ AI 자산관리 앱 'OCBC WoW'는 그룹 데이터 기반 맞춤형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

- 동남아 금융권 최초로 기존 뱅킹 앱에 보조적으로 AI 기능을 탑재한 것이 아닌 설계 단계부터 AI 네이티브 서비스를 중심에 둔 자산관리 앱을 출시
  - 앱 내 아바타가 음성 혹은 텍스트를 통해 고객과 실시간으로 소통하며, 고객의 실제 자산 포트폴리오에 맞춰 고객과 상호작용하는 가상 RM 역할을 수행

- 보유 자산 규모가 약 15억 원 이상의 고객과 임직원 50명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향후 소매 금융 고객에게 순차적으로 확대할 예정
  - 아바타와 지역별 언어를 추가 지원하여 다국적 고객의 선택 폭을 확장할 계획

|1| "Singapore's OCBC to hire 600 relationship managers, launches AI avatar app in wealth push", Reuters, 2026.7.1

■ 전사적 차원에서 AI를 활용해 인간의 생산성을 극대화시키는 중장기 전략을 수립

- 동 사는 비이자 수익 중심의 성장 구조 재편을 위해 '26년 'Next Frontier 전략'을 발표하고, 아시아 지역으로의 거점 확장 및 인적 자원 고도화, 기술 혁신을 추진
  - ASEAN 시장 확장(Asia Shift), 디지털화(Tech Shift), 그룹 계열사 시너지 모색(Franchise Shift), 지속가능한 금융시장 선도(Net-Zero Shift) 등을 목표로 설정

- 그룹의 디지털화 전략은 ADD 프레임워크를 마련해, 무조건적인 AI 도입이 아닌 AI가 데이터 기반 영업에 시너지를 줄 수 있는 역할에 중점
  - 그룹 계열사별로 관리하던 데이터를 통합하여 데이터를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AI로 대체 가능한 업무를 분류해 디지털로 전환하여 업무 효율화를 도모

- 직원들은 직급과 직무에 맞춘 AI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여, 업무에서 보조수단 차원으로 AI 역할을 구분하되 AI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
  - 비용 절감을 위한 기술 도입이 아닌 그룹의 수익성과 직원의 생산성 제고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목적 적합성' 관점에서 AI 기술 활용 여부를 결정

■ 국내에서도 WM 시장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AI 역할에 대한 고민이 필요

- 비이자수익 확대를 목적으로 국내 금융기관 역시 미래 WM 고객층을 선점하고, 자산관리 특화 점포를 확대하는 등 자산관리 부문 수익성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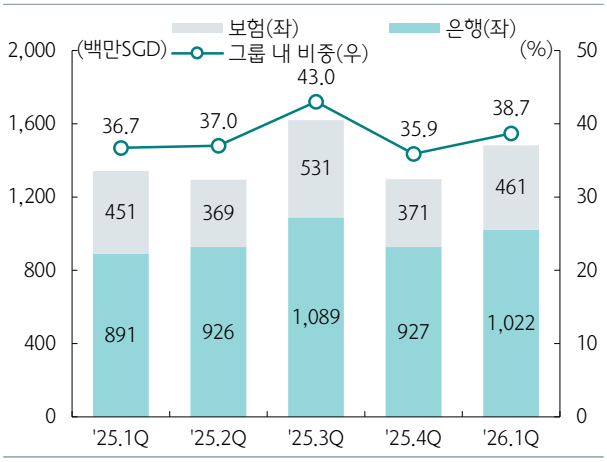
- AI 기술 도입을 단순한 인력과 비용 절감 차원이 아닌 전문 인력의 생산성을 높이는 동시에 서비스 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접근할 필요
  - 자산관리 서비스는 고객과의 신뢰가 핵심 요소라는 점을 고려할 때, AI와 대면 인력을 효과적으로 배치해 맞춤 서비스 경쟁력을 강화

■ OCBC AI 기술 활용 계층별 원칙

단계	계층	주요 원칙
1단계	데이터 수집층	• 실시간 뉴스, OCBC 리서치 센터 투자 인사이트, 고객 포트폴리오 등 정형화된 데이터만 유입하도록 통제
2단계	AI 가드레일층	• AI가 임의로 투자상품을 추천하거나 거짓 정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환각 현상' 통제 시스템 가동
3단계	AI 에이전트층	• 1-2단계 정보 기반 포트폴리오 분석 • 선제적 알림 알고리즘 생성
4단계	고객 UI층	• 대화형 인터페이스로 정보 구현 • AI 영역 밖의 질문 요청 시 대화 맥락을 RM에게 이관하여 대면 서비스 연동

자료 : OCBC

■ OCBC WM 부문 수수료 수익 추이



자료 : OCBC IR

Barclays, 청소년 금융 앱 인수로 유스 사업 확대

정 안 선 연구원

Barclays는 청소년 금융 플랫폼 GoHenry를 인수하여 유스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는 Barclays의 저연령층 손님 대상 서비스 공백을 해소하는 동시에 유스 손님의 성인 손님으로의 전환을 지원하여 평생 손님을 확보하는 전략의 일환으로 보인다. 글로벌 금융회사들은 유스 대상 금융 서비스를 확대하며 손님관리 강화를 추진 중이다. 국내 금융사들도 유스 손님과의 관계를 시작으로 장기적인 손님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가족 단위 손님 기반을 확대하고 락인 효과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 Barclays는 청소년 금융 플랫폼 GoHenry를 인수하고, 연내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1|

- Barclays는 청소년 금융 분야에서 가장 인지도가 높은 대표 금융 플랫폼 GoHenry(6-18세 전용)의 영국 사업 부문을 인수하기로 합의
- GoHenry는 결제, 송금, 투자 등의 금융 서비스 및 금융 교육 컨텐츠를 제공하는 글로벌 청소년 금융 앱으로 영국 내 50만 명의 청소년 이용자를 보유
  - 해당 플랫폼은 청소년 명의의 직불 카드를 발급하고 부모, 형제, 자매에게 직접 송금하거나 받을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는 등 청소년에게 독립적인 지위 부여
  - 부모가 자녀 명의의 주니어 ISA 계좌를 개설하고 투자할 수 있으며, 자녀가 18세 이상 성인이 되면 인출하거나 성인 계좌로 전환 가능

■ 이는 유스 손님을 확보해 부모를 포함한 가족으로 손님 기반을 확장하는 전략의 일환

- 청소년 금융 플랫폼 인수로 Barclays는 유스 손님을 확보함과 동시에 자녀 금융 수요가 있는 고소득층 가족으로 손님 기반을 확장
  - 인수 후에도 GoHenry 브랜드를 유지하고 독립적인 앱으로 운영하면서 기존 GoHenry의 손님을 흡수해 저연령층 손님군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
- 또한, 단기적인 수익 증대보다는 미래 손님을 선점하는 전략을 추진함으로써 생애 첫 계좌 개설부터 은퇴 자금 마련까지 생애주기별 금융 서비스를 완성
- GoHenry의 유스 손님이 Barclays 손님으로 유연하게 전환될 수 있는 구조를 구축함으로써 장기적인 락인 효과까지 기대

|1| “Barclays to acquire GoHenry, a money management platform for 6-18 year olds”, Open Bakning Expo, 2026.6.12

■ 글로벌 금융기관들은 유스 대상의 금융 서비스를 확대하며 손님관리 강화를 추진 중

- 영국 금융회사들은 미래의 잠재손님을 선점하고 장기적인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젊은 세대를 겨냥한 서비스를 경쟁적으로 확대
  - ’21년 NatWest는 어린이 용돈 관리 앱 Rooster Money를 인수해 손님 기반을 확대
  - Danske Bank UK는 청소년 디지털 계좌의 가입 가능 연령을 만 11세에서 8세로 낮추고, 18세 이하 손님 대상 모든 계좌의 수수료를 면제
  - 챌린저 뱅크 Revolut와 Monzo는 6~15세 전용 계좌를 출시했으며, 각각 연 최대 4.5%의 고금리와 충전 및 해외결제 수수료를 전면 면제하는 등의 혜택을 제공

- 미국, 호주의 주요 금융사들도 청소년 전용 투자 상품을 출시하고, 수수료 면제 및 맞춤 서비스를 통해 패밀리 뱅킹 서비스를 고도화
  - (미국) Charles Schwab은 13~17세 청소년이 주도적으로 증권 상품에 투자할 수 있는 Schwab Teen Investor Account를 출시하고 연동된 체크카드의 수수료를 면제
  - (호주) Common Bank는 Youthsaver(청소년 저축 계좌)에 집안일 미션 수행 시 부모가 용돈을 지급하는 앱을 연동해 가족 구성원 간 금융 거래를 활성화

■ 국내 금융사들도 유스 손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유스 손님과의 관계를 기반으로 장기적인 손님관리 체계를 구축할 필요

- 손님들이 혜택과 편의성에 대한 민감도가 상승하고 타 금융기관으로의 이탈 비용이 감소함에 따라 선제적인 유스 손님 확보에 대한 관심이 고조
  - 유스 전용 상품을 출시하고 금융앱에 생활플랫폼 기능을 더해 접속을 유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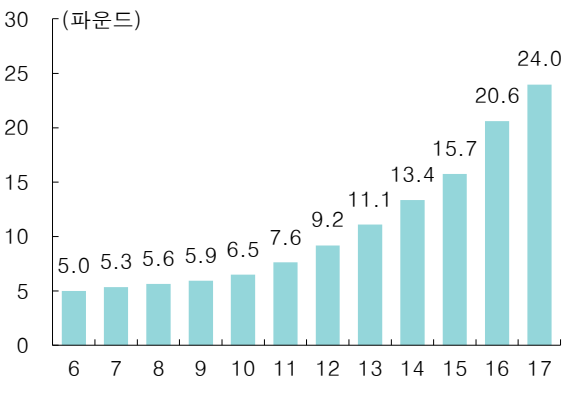
- 국내 금융사들도 어린이 손님 대상 서비스 및 가족 간의 금융 결합을 강화하고 생애주기별 유연한 금융 경험을 제공해 손님 이탈을 최소화할 필요

■ GoHenry의 주요 제공 서비스

서비스명	내용
개인 체크카드	어린이가 선택한 디자인의 실물 선불카드 발급
머니미션	저축, 예산, 투자 등 금융 관련 퀴즈, 영상 시청을 활용한 게임 형식의 교육
저축 목표	어린이가 직접 저금통을 생성해 돈이 모이는 과정을 체감 (부모가 이자 지급 가능)
송금	부모, 형제, 자매의 계정으로 직접 송금/수취
주니어 ISA	18세 이후에 인출할 수 있는 어린이 전용 ISA 계좌

자료 : Acrons

■ 영국의 연령별 평균적인 일주일 용돈('25)



자료 : Statista

상승하는 원·달러환율...외환집중제와 재정준칙 시급하다*

한 상 춘 연구자문위원

최근 들어 달러당 1,500원 이상의 원·달러 환율이 고착화될 움직임을 보임에 따라 우리 경제의 최대 현안으로 부각하고 있다. 외환 당국에서도 구두와 달러 매도 개입 등을 통해 원·달러 환율을 안정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거꾸로 올라가는 추세다. 앞으로 원·달러 환율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따라 올해 하반기 이후 주가를 비롯한 재테크 변수를 좌우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외환시장 안정화를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외환집중제를 시행하거나 중장기 측면에서는 재정 건전성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

양호한 경제여건에도 불구하고 원·달러 환율 상승

최근 높은 원·달러 환율 수준과 높은 변동성은 종전의 외환시장과는 다른 모습

최근 원·달러 환율 움직임은 종전과 구별되는 두 가지 커다란 특징을 갖고 있다. 하나는 절대 수준이 높다는 점이다. 실질실효환율 기준으로 추정되는 원화 가치의 적정선인 1,330∽1,350원에 비해 200원 정도 웃돈다. 원화와 같이 움직이는 엔화를 제외한 재정거래 대상 대부분 이종 통화에 비해서도 높다. 다른 하나는 원화의 변동성이 우리보다 경제 위상이 낮은 동남아시아 통화보다 심하고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는 점이다. 대표적으로 베트남 통화보다 2배 이상 높은 변동성이 4년 이상 지속되고 있다. "원화를 팔아 아프리카 콩고 주식을 사라"는 말이 나올 만큼 이류 통화로 전락할 것이 아닌가하는 우려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특정국 통화가치가 그 나라 경제 실상을 반영하는 얼굴이라는 차원에서 보면 원·달러 환율은 하락해야 하고 변동성도 축소돼야 한다. 올해 들어 4월까지 경상수지흑자는 1,000억 달러를 넘어섰다. 외환보유고도 적정수준을 웃돈다. 지난 1분기 성장률은 전분기 대비 1.7%를 기록해 미국 0.5%에 비해 3배 이상 높다. 코스피 지수 상승률은 압도적으로 세계 1위다.

또한 외환 당국의 원·달러 환율을 하락시키려는 의지도 그 어느 때보다 강하다. 수입 물가 안정과 대미 투자 재원 등을 마련하기 위해 원·달러 환율은 낮으면 낮을수록 좋다는 입장이다. 미국도 원화 가치가 저평가됐다고 인식하고 있어 스무딩 오퍼레이션 등을 통해 원·달러 환율을 하락시키는 데 적극적으로 협조할 태세다.

* 본고의 내용은 집필자 개인의견으로 하나금융연구소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환율상승 및 高변동성은 외환시장에 대한 불안 심리를 반영

외환시장에서 경제 여건이 괜찮고 정책 의지도 강한데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고 변동성이 커지는 것은 심리적으로 불안할 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현상이다. 지난 4월 이후 달러 예금과 미국 주식투자 비중도 다시 늘어나고 있다. 리밸런싱만 끝나만 그칠 것으로 봤던 외국인 자금의 대거 이탈도 줄어들고 있지 않다.

국제수지표상 오차와 누락 항목의 적자 폭이 확대되는 등 외환시장에서의 심리 불안 지속

더 심각한 것은 국제수지표상 오차와 누락 항목의 적자 폭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점이다. 이 항목은 수출 금액보다 더 적게 국내에 들어오거나 수입 금액보다 많게 해외에 유출하는 등 원인이 명확하지 않은 외화거래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최근 들어서는 국내 증권사의 해외 주식투자와 회수 과정에서 이 항목의 적자 폭이 커지는 점도 눈에 띈다. 올해 들어 4월까지 오차와 누락 항목의 적자액은 118억 달러로 같은 기간 중 경상수지 흑자액의 무려 11%에 달한다. 외환위기가 발생했던 1996년 70억 달러, 금융위기가 발생했던 2008년 83억 달러를 불과 4개월 만에 넘어, 이러다간 제2의 외환위기가 발생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시각까지 나오고 있다.

구두나 외환보유를 낭비하는 외환시장 개입보다 더 강력한 특단의 원·달러 환율 안정 대책이 절실한 것도 이 때문이다. 달러화, 엔화 이외 이종 통화에 대한 직거래 비중을 높이고 원화 실수요 원칙을 강화해야 한다. 국내에 들어오는 외화를 곧바로 원화로 바꾸는 외환집중제나 해외 주식 등에 투자할 때 달러 가변예치제를 일시적으로 추진하는 것도 검토해 봐야 한다.

국가채무 증가는 외환시장의 어려움을 가중

'재정 지배'는 물가, 경기, 채권 및 외환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

불안한 심리보다 더 중요한 요인은 최근 미국 중앙은행(Fed)가 발표한 보고서[1]에서 지적한 '재정 지배(fiscal dominance)'다. 권력욕이 강한 통수권자의 재정이 의회와 중앙은행 등의 견제를 무시하고 압도한다는 차원에서 붙여진 용어다. 재정 지배로 가장 우려되는 것은 '부채의 화폐화(bond monetization)'이다. 재정적자와 국가채무가 늘어나면 발행한 국채는 민간에서 소화되기가 어려워 중앙은행이 사줄 수밖에 없는데 표심을 겨냥한 포퓰리즘 공약을 많이 내건 통수권자일수록 이 방안에 대한 유혹이 커질 수밖에 없다. 영국 경제 전문지인 이코노미스트는 자신의 목적 달성을 하지 못하면

|1| Federal Reserve, "Fiscal Policy, Portfolio Friction and International Transmission", 2026.6

더 강하게 중앙은행을 지배하는 '재정적자와 포퓰리즘 간 악순환 고리(deficit populism doom loop)'에 빠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재정적자와 국가채무가 많은 국가일수록 현재보다 미래, 단기보다 장기일수록 기대 물가가 높다. 재정지출이 늘어나는 여건에서 중앙은행은 금리 인상을 단행해야 하지만 통수권자의 요구대로 금리를 내리면 물가는 말이 뛰는 식으로 올라가는 갤로핑 인플레이션(galloping inflation)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경기에 미치는 효과도 의문시된다. 케인즈의 재정지출 승수효과는 1930년대 대공황 당시에는 3배를 웃돌았으나 최근에는 1배 내외까지 떨어졌다. 선진국처럼 국채 부채가 위험수위가 넘은 여건에서는 국채 발행에 따른 구축 효과로 오히려 물가 상승 속에 경기가 침체되는 '재정 긴축(fiscal stagnation)'이 나타날 확률이 높다.

국채 투자자는 더 곤혹스러운 상황에 빠질 수 있다. 2년 전부터 기준금리 인하, 지정학적 위험 등을 고려해 국채에 투자한 투자자들은 재정 지배에 따른 재정적자 심화와 국가채무 확대 우려로 국채금리가 상승하면서 손실을 보기 때문이다. 지난해 트럼프 정부가 관세정책을 추진할 때 재무부가 주관해 '스텔스 양적완화(QE)'를 병행했었다. 관세를 부과할 때 국채 발작이 일어나고 국채금리가 급등해 국가부도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만약 관세를 부과할 때 국채시장 안정 방안을 병행하지 않으면 국채금리 상승과 국가부도 위험 간 악순환 국면에 처할 확률이 높다.

재정 지배는 일본처럼 기준금리 인상에도 환율이 상승하는 현상을 초래

그렇다면 재정 지배의 궁극적 모습은 어떻게 될 것인가. 케네스 로코프 미국 하버드대 교수는 포린어페어스에 기고한 칼럼에서 △재정이 불안하고 △금리가 높으며 △정치가 마비돼 있고 △충격이 오는데 위정자가 느끼지 못할 때 부채 위기가 온다는 4단계론을 제시하면서 지금 선진국은 마지막 단계에 와있다고 진단했다. 최근 한국과 같은 고민을 하는 일본을 보면 3년 전 우에다 일본은행(BOJ) 총재 취임 이후 엔저를 저지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계속 올려왔다. 하지만 엔·달러 환율은 147엔대에서 161엔대로 상승했다.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270%로 위험수위를 넘은 여건에서는 금리 인상이 국가부도 위험을 더 높여 안전통화로서 엔화의 기능을 약화시켰다. 펀더멘털과 정책 여지를 고려하면 원·달러 환율이 하락해야 하지만 올라가는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 우리처럼 국가채무 증가 속도가 빠르게 늘어나는 여건에서는 기준금리를 올려 원·달러 환율을 안정시키려 하더라도 국가부도

위험이 더 높아질 수 있다. 국내 증시에서 리밸런싱만 끝나면 들어올 것으로 봤던 외국인 자금이 계속해서 이탈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재정 건전화를 통한 원·달러 환율 안정화 필요

재정 지배가 아닌 재정 건전화로 원·달러 환율을 안정화시켜야

현시점에서 원·달러 환율을 안정시키기 위해 절실한 것은 재정 지배가 아니라 '재정 건전화(fiscal consolidation)'다. 재정 건전화란 단순히 재정지출을 줄이는 긴축(austerity)이 아니라 공공기관과 공무원 수 축소, 각종 위원회 폐지, 경직성 항목을 투자성 항목으로 조정하는 페이 고(pay-go) 등으로 재정수지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말한다.

우리도 40년 뒤에는 국가채무가 국내총생산 대비 173%에 달할 것이라는 기재부의 충격적인 보고서(2025)가 있었다. 저출산과 고령화로 잠재 성장 기반이 약화되면 성장률이 떨어지는 반면 재정 지출은 계속 늘어날 것이라는 근거에서다. 다만 국가채무 문제는 경제 단위로서 재정이 민간과 다른 점을 짚고 넘어가야 한다. '양출제입(量出制入)의 원칙'을 취하는 재정은 '양입제출(量入制出)의 원칙'을 취하는 민간과 건전성 판정 기준이 달라야 하기 때문이다. 민간은 흑자를 내야 하지만 재정은 적자를 내는 것이 반드시 나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바람직할 수 있다. 재정이 적자를 내는 것이 일반적이라면 국가채무가 늘어나는 것이 나쁘다는 선입견과 반드시 줄여야 한다는 것도 잘못됐다. 국가채무가 늘어나더라도 관리가능하면 큰 문제가 없다는 의미다.

국가채무 관리는 재정준칙을 통해 사후보다 사전적인 방안이 바람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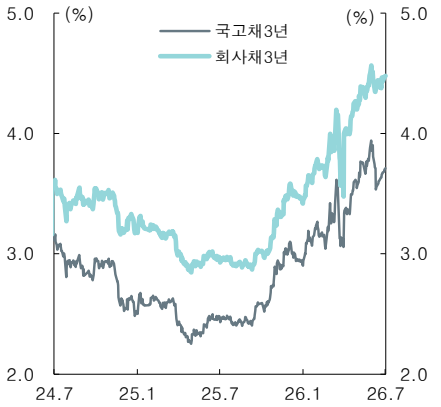
그러나 국가채무에 대한 관리 시기는 국가채무가 일단 위험수위가 넘으면 국가신인도 추락 등의 부작용이 큰 만큼 '사후'보다 '사전'적인 방안이 더 바람직하다. 국가채무를 관리하는 사전방안은 통화 준칙의 필요성과 실행방법을 살펴보면 그 답이 나온다. 국민경제 생활에 가장 보편적인 영향을 주는 금리 변경을 몇 명의 보드 멤버(우리의 경우 금융통화위원)에 재량적 판단에 맡겨서는 안 된다. 목표선을 정해 물가가 그보다 높으면 금리를 올리고 낮으면 내려야 한다는 것이 밀턴 프리드먼과 같은 통화론자의 견해다.

같은 맥락에서 재정 준칙은 재정적자와 국가채무를 GDP의 일정 범위 내에서 관리하는 방안을 말한다. 통화 준칙보다 경합성과 배제성 원칙이 적용되지 않아 공공성이 강한 재정 준칙은 더 엄격하게 관리돼야 한다. 이 때문에 법적 근거는 가능한 최상위법으로 하되 관리 기준은 엄격히 규정하고 적용해야 하며 위반할 때는 강력한 제재가 뒤따라야 한다.

국내 금융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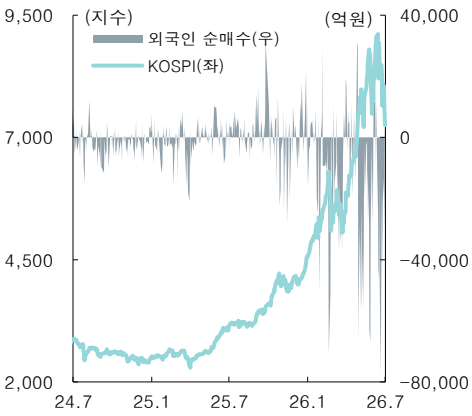
금리

단위: %	콜 (1일)	CD (91일)	산금채 (1년)	회사채 (AA-,3년)	국고채 (3년)	국고채 (5년)
'24년말	3.33	3.39	3.01	3.28	2.60	2.76
'25월말	2.63	2.81	2.79	3.48	2.95	3.24
6월말	2.65	2.92	3.63	4.38	3.63	4.38
7월 3일	2.44	2.92	3.67	4.43	3.67	4.43
7월 6일	2.44	2.92	3.68	4.46	3.68	4.46
7월 7일	2.43	2.91	3.70	4.47	3.70	4.47
7월 8일	2.43	2.91	3.71	4.47	3.71	4.47
7월 9일	2.51	2.91	3.71	4.48	3.71	4.4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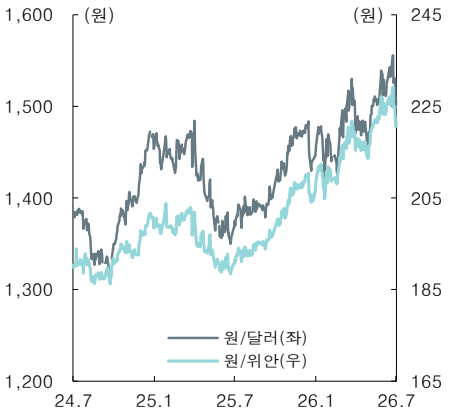
주가

	KOSPI (지수)	거래대금 (억원)	거래량 (백만주)	외인순매수 (억원)
'24년말	2,399.5	53,155	304	-1,207
'25월말	4,214.2	132,135	408	-4,886
6월말	8,394.7	426,845	371	-77,560
7월 3일	8,088.3	454,921	466	-21,556
7월 6일	8,051.3	320,028	449	-13,379
7월 7일	7,656.3	407,174	516	-29,300
7월 8일	7,246.8	424,654	501	3,390
7월 9일	7,291.9	395,567	583	1,428



환율

단위: 원	원/달러	원/100엔	원/위안	원/유로
'24년말	1,472.5	934.1	201.4	1,522.7
'25월말	1,439.0	916.1	204.4	1,686.3
6월말	1,549.4	953.1	228.1	1,769.5
7월 3일	1,525.6	945.2	224.8	1,744.7
7월 6일	1,530.3	943.1	224.9	1,749.1
7월 7일	1,528.2	936.6	223.0	1,728.9
7월 8일	1,498.5	923.1	220.7	1,713.8
7월 9일	1,506.1	927.9	221.8	1,72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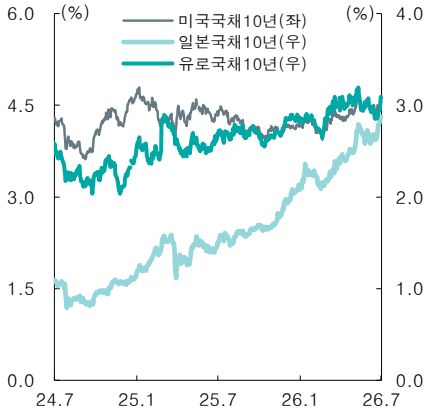


자료 : Bloomberg, 연합인포맥스

해외 금융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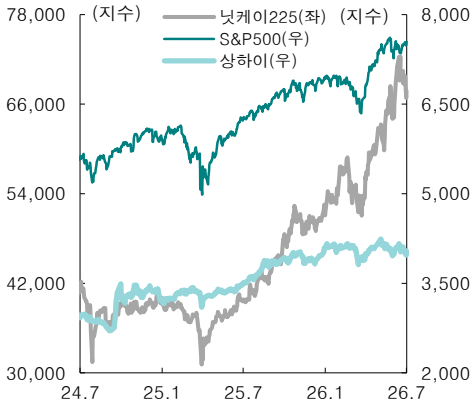
금리

단위: %	미국				일본	유로
	실효FFR	SOFR3월	국채2년	국채10년	국채10년	국채10년
'24년말	4.33	4.69	4.24	4.57	1.10	2.37
'25월말	3.64	4.01	3.47	4.17	2.07	2.86
6월말	3.63	3.63	4.17	4.47	2.68	2.86
7월 3일	3.63	-	4.14	4.48	2.79	2.94
7월 6일	3.63	3.63	4.11	4.47	2.83	2.95
7월 7일	3.63	3.63	4.18	4.55	2.86	2.99
7월 8일	3.62	3.63	4.22	4.58	2.87	3.09
7월 9일	3.62	3.63	4.18	4.55	2.88	3.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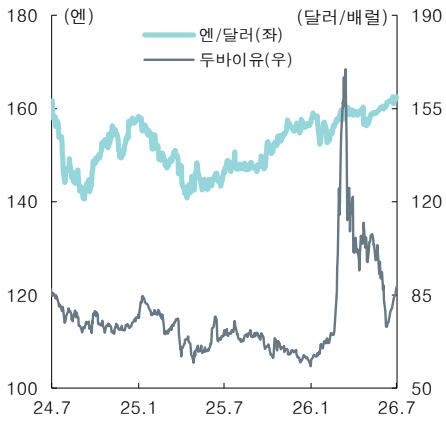
주가

단위: 지수	S&P500	닛케이225	상하이종합	Euro Stoxx
'24년말	5,881.6	39,894.5	3,351.8	4,896.0
'25월말	6,845.5	50,339.5	3,968.8	5,791.4
6월말	7,499.4	70,062.3	4,094.4	6,328.1
7월 3일	-	69,744.1	4,043.6	6,412.7
7월 6일	7,537.4	69,737.7	4,041.2	6,398.0
7월 7일	7,503.9	68,257.0	3,990.2	6,319.9
7월 8일	7,482.7	66,819.1	3,970.9	6,204.9
7월 9일	7,543.6	67,743.9	4,036.6	6,284.3



환율/상품

	환율		상품(유가 현물, 금 선물)	
	엔/달러(엔)	달러/유로($)	Dubai($/배럴)	Gold($/온스)
'24년말	157.36	1.036	75.9	2,641.0
'25월말	156.63	1.175	61.6	4,341.1
6월말	162.48	1.142	68.3	4,038.5
7월 3일	161.36	1.144	63.8	-
7월 6일	162.07	1.144	64.1	4,167.5
7월 7일	161.99	1.141	66.5	4,157.4
7월 8일	162.52	1.142	70.2	4,082.4
7월 9일	162.36	1.143	70.5	4,132.8



자료 : Bloomberg, 연합인포맥스

메 모

하나금융포커스

제16권 13호

등록번호 서울중, 다00037
등록일자 2011년 3월 21일

2026년 7월 10일 인쇄
2026년 7월 13일 발행

발행인 이호성
편집인 안성학
발행처 하나은행 하나금융연구소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66 하나금융그룹 명동사옥
대표전화 2002-2200
홈페이지 www.hanaif.re.kr

인쇄 (주)광문당

본 지에 게재된 내용은 집필자 개인의견으로
하나금융연구소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홈페이지

카카오톡 채널

하나은행 하나금융연구소
하나금융포커스 제16권 13호

04538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66 하나금융그룹 명동사옥
Tel 2002-2200 E-mail hanaif@hanafn.com